



## MATTHIAS LEY

---

JEAN PAUL SOULSCAPES

마티어스 라이

---

### 마티어스 라이

1965년 독일 바이로이트(Bayreuth)에서 태어나  
분지델(Wunsiedel)에서 성장  
1991-2011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일본 도쿄에서  
대기업 광고 및 인터넷서널 매거진 포토저널리스트로 활동  
2008년 이후, 파인아트 다큐멘터리 사진가로 전향  
한국, 일본, 독일에서 개인전 및 그룹전시회 개최  
현재, 독일 뮌헨에 본거지를 두고 있다.

[www.leyphoto.com](http://www.leyphoto.com)







## JEAN PAUL(장파울) SOULSCAPES



2011년 3월 일본 도후쿠지방을 강타한 강진에 이어 쓰나미, 후쿠시마 원자력 폭발 사고의 연속적인 대재앙은 익숙해진 도쿄의 삶으로부터 나와 나의 한국인 아내를 너무도 당황스럽게 했고 인정사정없이 우리를 밖으로 내몰아쳤다. 그렇게 내 던져진 우리는 독일 바이에른(Bavarian)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나의 고향 분지델(Wunsiedel)로 돌아왔다. 삭막한 콘크리트 숲에서의 생활과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피난민이 되었던 충격적이고도 지울 수 없는 기억들은 나의 유년시절에 늘상 함께했던 이곳 분지델의 작은 길들을 걸으며 서서히 회복되었다.

우리가 살고있는 곳으로부터 걸어서 1시간 반경내에 있는 곳들을 산책하면서 소설가 장파울의 포토시리즈 "Soulsapes"의 아이디어를 갖게되었다. 장파울은 248년전 나의 고향인 분지델에서 태어났고, 그 당시 괴테와 실라보다도 더 인기가 있었던 소설가였다. 그는 프랑스혁명의 사상으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았다. 우연의 일치였을까? 내가 고향의 길들을 거닐며 다녔던 바로 그 즈음에 세계 곳곳에서는 또 다시 프랑스혁명의 가치를 상기시키는 투쟁과 시위가 시작되었다. (아랍의 봄, 월가시위) 여기에 또 하나의 원이 교집합처럼 겹쳐진다. 나의 초기 포토시리즈 "광주를 기억하며"(사진예술 2010년 4월)의 주제가 되었던 1980년 광주항쟁은 풀뿌리 민중봉기의 모범적인 사례로서 아랍의 봄 혁명과 월가시위에도 직접적인 영감을 주어왔다. 이렇듯 모든 것이 나에게만 연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파울 그 또한 생각했듯이 불교철학의 세계관인 "모든 것은 모든 것과 연결되어있다".

포토시리즈 JEAN PAUL SOULSCAPES를 통하여, 나는 세속적이고 사실적인 오늘날의 들판의 이미지와 장파울의 소설속에서 그려진 낭만적이고 정신적인 풍경인 대지와 길들을 대비시키고자 하였다. 나의 사진들은 자연과 풍경에 대하여 다른 관점으로 투영되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자연을 자연 그대로 느끼고 경험하려 하지 않는다. 오로지 자연은 이용되어질 뿐이다. 이번 나의 포토시리즈에서는 인물사진을 다루지 않았다. 다만 들판에 남겨진 발자취와 작은 길들만이 산업화된 대지를 말해주고 있다. 그 길들을 걸어나는 동안 나는 거의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다. 설령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자연과의 교감을 거부하듯 이어폰과 아이팟을 끼고 조깅하는 몇몇 사람에 불과하였다.

JEAN PAUL SOULSCAPES는 길, 나무 그리고 계절, 이 세가지의 주제로 구성되었고, 연속적으로 재현하였다. 막 인화된 사진들을 작업대 위에 펼쳐놓고 들여다보고 있을 때, 나는 얼마나 자주 풍경이 변화하는지를 알게되었다. 한여름의 싱그러운 초록빛의 대지는 이른 8월에 갈색톤으로 바뀌었다가 그 이후에 다시 초록빛을 되찾는데, 그 이유는 들판에 뿌린 겨울씨앗이 파릇파릇 올라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시 들판은 모노크롬의 갈색톤을 띄었다가 날씨가 더 추워지면 황금색으로 그리고 다시 회색빛으로 바뀐다.

The triple catastrophe of earthquake, tsunami and Fukushima nuclear accident of March 2011 suddenly and brutally jerked my Korean wife and me out of our familiar life in the Tokyo metropolis and catapulted us back to my small German hometown of Wunsiedel in the Northern Bavarian countryside.

After the drab concrete jungle of Tokyo and the traumatic experiences of being refugees we recovered by walking around Wunsiedel on the intimately familiar paths of my childhood, enjoying the views of the early spring landscape around us. Healing times. While walking, I got the idea to make a photo series related to the novelist Jean Paul. Jean Paul, born in Wunsiedel 248 years earlier, was in his time even more popular than Goethe or Schiller. Jean Paul was inspired by the ideals of the French Revolution. Was it a coincidence that exactly at the time of my walks around Wunsiedel people all over the world again remembered these values and fought and demonstrated for them (Arab Spring, Occupy Wallstreet Movement). Another circle closes here: Both the Arab Spring Revolutions as well as the Occupy Wallstreet Movement were directly inspired by the grassroots organized Uprising of Gwangju in 1980, which was the subject of my earlier project REMEMBERING GWANGJU (Sasjinyesul, April 2010).

Not only for me all these things are connected, but also Jean Paul thought, that "everything is connected with everything", a truly Buddhist philosophical view of the world!

In my photo project JEAN PAUL SOULSCAPES I wanted to contrast my secular and matter of factly images of today's fields, lands and paths with the romantic and devinespiritual landscapes of the novels by Jean Paul. My photographs reflect the changed perspective of nature and landscape. People do not experience nature anymore, nature only is there to be used. My photographs are devoid of humans, traces and tracks in the fields are a reference to the industrial agriculture. I hardly met any people out on a walk, only some joggers who sealed themselves off from the natural world around them with earplugs and ipods.

My series consists of 3 elements which constantly reappear as motifs: Paths, trees and the seasons. Only after comparing my photographs I realized, how often the colors of the landscape are changing. The fresh greens of summer are followed by the early browns of August, then it is green again thanks to the winter seeds, only to be dominated by hues of browns, yellows and greys during the colder months.